

북한의 음악 : 철학, 형식, 종류에 대한 고찰

장 기 범*

차 례

- I. 서 론
- II. 북한 음악의 철학적 배경
 - 1. 사회주의의 음악관
 - 2. 주체음악사상
- III. 북한 음악의 형식과 종류
 - 1. 북한 음악의 기본형식
 - 2. 북한 음악의 종류
- IV. 북한의 음악교육과 악곡의 종류
 - 1. 북한 음악교육
 - 2.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의 종류
- V. 요약 및 제언
 - 1. 요약
 - 2. 북한 음악의 이해를 위한 제언

I. 서 론

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대통령의 북한 방문과 두 정상 회담 그리고 이에 따른 6.15공동선언을 정점으로 과거 그 어느 시기보다도 평화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8.15를 기점으로 이산가족의 상봉이 이루어졌으며, 8월 21일, 예술의 전당에서는 북한의 조선 국립교향악단의 연주가 있었다. 또한, 남한의 KBS오케스트라와 조선관현악단의

*서울교육대학교 조교수

역사적인 합동연주가 있기도 했다. 이에 앞서 평양교예단의 방문연주와 평양학생예술단의 연주가 있었고, 그에 상응하는 리틀엔젤스의 연주가 먼저 평양에서 거행된 것 등은 모두가 민족화합을 향한 의미 있는 음악적 노력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의 통일교육 역시 반공제일 주의, 북한의 체제 및 정치권에 대한 비난 일변도의 입장에서 상호 이해와 북한 바로 알기의 차원으로 선회한 것도 민족의 통일을 염원하는 큰 변화라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음악과에서의 대북 교류는 연주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왔다. 이제, 이북의 음악을 바로 알고 음악적 통일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이북의 음악과 음악교육에 관한 학문적 분석과 이에 따른 이질감의 극소화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러한 분석과 진단은 1차적 자료에 기인해야 하며, 그 입장은 분석적 입장이어야 한다. 또한, 비판과 가치우월성을 따지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학계의 중론에 따르면 남한 청소년들의 많은 경우가 통일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¹⁾ 이것은 한마디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의 결여와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문제점이 있음을 시사한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는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논문은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의 음악은 어떠한 철학적 배경 위에 존재하며, 어떤 종류의 음악이 있고, 특히 차세대를 교육하고 있는 공교육기관에서 교육 내용의 주체가 되는 음악교과서에는 어떤 종류의 악곡이 포함되어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음악교육을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추구한다는 연구의 궁극적 목적이 배후에 깔려 있지만, 이 연구는 일차적으로 북한 음악의 이해라는 모토에 중점을 둔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연구는 북한에서 발간된 음악에 관한 이론 서적들과 북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에서 사용되는 음악 교과서 그리고 북한 음악에 관한 최고의 윤리강령인 '김정일 음악예술론'을 중심으로 북한 음악의 철학, 음악의 형식과 종류 등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

II. 북한 음악의 철학적 배경

북한은 1998년에 개정된 헌법의 서문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구현한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이다' 라고 명시하고 있고, 헌법1장 1조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이다.'라고

1) 최근 민주평통이 실시한 통일교육실태 여론 조사 결과 75%의 중·고교 학생들이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

밝히고 있다. 즉, 이들의 정체성은 사회주의를 표방한다는 면에서 음악적인 배경 역시 사회주의적인 배경을 그 근거로 볼 수 있다. 다음은 북한음악의 철학적 배경에 관하여 관련 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사회주의의 음악관

리머(Bennett Reimer)는 음악의 미적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 마이어(Leonard B. Meyer)가 제시한 형식주의(formalism), 지시주의(referentialism), 표현주의(expressionism)의 3가지 철학적 관점을 제시한다. 각 관점은 물론 절대주의(absolutism)와 비절대적 입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형식주의는 19세기 미학자인 한슬릭(Edward Hanslick)에 의하여 상세하게 설명되어진 입장으로 음악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음악 그 자체라는 입장이다. 형식주의는 '작곡가가 음악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아이디어는 일차적으로 순수한 음악적인 성격을 띠고 있기에 명확하게 음악외적인 것을 지칭하는 감정이나 느낌이 음악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믿음에서 비롯된 견해이다.

이에 비하여 지시주의적 입장은 음악의 의미와 가치는 음악이 지칭하는 비음악적인 요소들에 있다고 주장하는 입장이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교부주의 교육자와 철학자들, 그리고 동양의 공자를 비롯한 사상가와 음악가들이 신봉해온 입장이 바로 지시주의적 입장이다. 영국의 미학자인 더릭 쿡(Deryck Cooke)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음악과 예술을 '감정의 언어'로 바라본다는 관점에서 지시주의적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두 견해에 비하여 표현주의는 음악의 가치와 의미는 음악자체에 있다는 것에는 형식주의와 의견을 같이하지만 형식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인간의 삶과 동떨어진, 오로지 지적인 요소가 음악의 절대적 가치이며 의미라는 것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즉, 음악작품의 미적요소는 인류가 향수하는 질 높은 삶의 미적 요소와 상통하며, 음악작품을 통하여 이러한 미적요소를 찾고 그 요소를 통하여 의미 있는 미적 감흥을 경험하는 것이 음악의 가치이자 음악교육의 가치라는 견해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국가들이 표방하고 있는 음악관은 지시주의적인 입장이다. 마르크스-레닌주의(Marxism-Leninism)는 예술을 사회와 정치적인 필요에 따른 공복으로 규정짓고 있다.²⁾ 이런 관점에서 음악의 의미와 가치가 음악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음악이 지칭하는 그 무엇에 있다는 입장을 지지하는 지시주의적 관점은 마르크스-레닌의 예술관을 수용하기에 부담이 없다. 왜냐하면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은 음악적 소리의 아름다움이나 형식미, 음악적 요소의 내

2) 성경희·장기범, 음악교과학 연구(서울 : 한국교육개발원, 1997), 2-56쪽.

용 등에 음악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애국심의 고취, 음악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된 가치를 부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장은 북한에서도 맥을 같이한다. 북한의 모든 예술의 최고 이념은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이다.'¹⁾ 라는 학자들의 견해는 예술이 가지는 추상성이나 주관성 등을 배제함을 의미한다는 견해에서 어느 정도는 수긍이 간다. 그러나 북한의 음악적 배경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견해와는 또 다른 틀을 가지고 있다. 즉, 추상성의 배제는 기본이며, 음악을 통한 정치적 통치성과 체제의 견고한 구축을 위한 도구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음악은 성악곡은 물론 기악곡도 추상적이지 않기 위하여 인민가요, 혹은 민요 등의 선율을 가져와서 이를 토대로 편곡 혹은 작곡되고 있다. 실제로 평양에서 자주 연주하는 기악곡들인 '피바다' 교향곡, 바이올린 협주곡 '대를 이어 충성하렵니다', 피아노 협주곡 '조선은 하나다' 등을 보면 모두가 가요를 바탕으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지시주의적 입장이며 '통제된 사실주의적' 입장이라는 점은 김정일의 주체음악사상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내용이다. 음악에서 내용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것은 예술지상주의, 형식주의의 표현으로서 《예술을 위한 예술》, 《순수한 형식미》의 미명 밑에 음악의 건전하고 혁명적인 사상과 내용을 거세하기 위한 반동적인 주장이다. 음악에 진보적이고 혁명적인 내용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들을 혁명적인 사상으로 교양하는데 이바지하지 못할 뿐 아니라 사상교양사업에 해독적 후과를 미치게 된다.'

2. 주체음악사상

북한에서는 음악을 매우 중요한 사상무장의 도구로 생각한다. 북한음악 사상의 핵심은 '주체음악'이다. '주체음악이란 새 시대, 주체시대의 요구와 인민대중의 지향을 그 내용과 형식에 철저히 구현한 새로운 음악형태이다.'라고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은 규정한다. 이러한 믿음은 전기한 대로 음악을 인간의 도구로 보는 지시주의적 관점에서 비롯한다. 이 관점은 '참다운 음악은 시대의 요구에 충실하며 시대의 사명에 이바지한다. 이것은 시대 앞에 지닌 음악의 기본 의무이며 중요한 역할이다.'²⁾ 라는 주체음악의 테제에 그대로 제시되어 있다.

주체음악사상의 발전은 '새 시대에는 새로운 음악을 요구한다.'는 이론에서 비롯한다. 김정일 음악예술론은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이 시대의 흐름으로 되고 있는 현시대는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고 그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음악예술을

3) 황병기, 음악교육신문 "북한의 음악", (2000. 8).

4) 김정일,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1), 5쪽.

5) 상계서, 3쪽.

발전시킬 것을 절실히 요구한다. 주체시대에 상응한 음악적 요구와 사명에 이바지하는 음악은 주체음악이다. 주체음악만이 우리 시대의 본질을 가장 정확히 체현하고 주체시대의 위업에 충실히 복무할 수 있다.⁶⁾

위의 주장은 한마디로 주체음악은 시대의 요구에 의하여 태어나서 인민의 혁명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는 요지로 요약된다. 따라서 주체음악은 예술의 사회적 영향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하며, 인민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그들의 취향을 대변할 수 있는 음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주체음악의 내용은 다분히 혁명적⁷⁾인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이 논자의 주장을 증명한다.

‘주체음악은 내용이 혁명적이다’, ‘주체음악은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과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에서 느끼고, 고결하고 숭고한 정신적 체험과 락천적이고 전투적인 심리적 격동을 깊은 감정정서 세계로 펼쳐 보여줌으로써 인민대중의 지향과 욕구를 구현하게 된다.’, ‘사상이 없이 감정이 생길 수 없고 사상과 감정이 없이 정서가 나올 수 없는 것만큼 자주적이고 혁명적인 사상과 고상한 정신에서 출발하지 않고서는 시대의 정서가 차넘치는 음악이 나올 수 없다’, ‘음악이 보여주는 모든 훌륭한 감정과 정서는 혁명의 근본문제인 인간의 자주성을 옹호하는 인민대중의 생활과 투쟁의 근본바탕, 근본요인을 체현한 것으로 되어야 한다.’⁸⁾

이렇듯 북한음악의 근본 철학인 주체음악사상은 사상성과, 사상성에 근거한 구체성, 그리고 구체성을 통한 음악외적인 정치적 목적달성을 지향하고 있고, 음악을 예술로 보기보다는 투쟁이라는 이슈의 도구로 여기고 있으며, 예술을 통한 인간의 미적 욕구의 추구라든가 창작욕구의 구현 등은 사치스러운 허구로 규명하고 있다.

음악을 정치적 도구로 여기는 사실은 다음과 같은 논리의 모순성에서도 여실이 드러난다. ‘참다운 음악이 보여주어야 할 인간은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인간으로서 사회 정치적 집단에 충실한 인간, 사회 정치적 생명체 안에서 영생하는 인간이다. 음악은 이러한 인간의 사상감정을 보여주어야 한다.’⁹⁾ 자주성을 강조하면서도 사회, 정치적 집단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는 모순을 보여주고 있다.

주체음악사상은 북한이 정부를 수립하고 모든 분야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체’라는 입장을

6) 상계서, 4-5쪽.

7) 일반적으로 혁명이라는 단어는 ‘체제의 전폭적인 개혁, 상황의 반전’ 등의 의미로 사용되지만, 북한에서는 혁명적이라는 용어를 매우 다양한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북한에서 ‘혁명’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즉, 조국이 분단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부 수립을 혁명적 과업이라고 지칭하는가 하면, 노동을 하는 것도 혁명에 비유되며,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혁명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8) 상계서, 5-7쪽.

9) 상계서, 7쪽.

모토로 삼았고 음악에서도 이 모토를 정점으로 나름의 음악관을 정립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체 음악 사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 1) 주체음악사상은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음악을 요구한다는 믿음에서 비롯한다.
- 2) 새로운 음악은 민중과 친밀한 음악이어야 하며, 착취계급이 선호하는 음악과는 구별된 음악이어야 한다.
- 3) 새로운 음악은 따라서 쉽고, 분명하며, 모든 대중이 이해할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 4) 이러한 음악은 독창적이어야 하고, 외국의 것을 수용하더라도 내 것으로 화하는 성격이 강해야 한다.
- 5) 음악은 인민을 섬겨야 하고, 정치적, 사회적 공복의 입장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목적구현이 없는 음악은 음악의 가치가 없는 예술을 빙자한 허구이다.

Ⅲ. 북한 음악의 형식과 종류

1. 북한 음악의 기본형식

북한의 음악은 조성음악(tonal music)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이러한 조성은 일정한 체계를 가지게 된다. 북한은 이러한 체계를 조식체계라고 한다. 조식이란 하나의 주음에 기초하여 안정 음과 불안정음들이 인성(플립성)관계로 결합된 음들의 조직체계를 말한다. 조식에는 '대조식'과 '소조식'이 있다.¹⁰⁾ 남한에서 지칭하는 조성과 북한의 조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조성이란 음악에서 주음의 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조식의 구체적인 음높이를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¹¹⁾ 즉, 조성이란 '가 장조'와 같이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을 지칭한다.

조식을 가진 음악은 일정한 틀을 가지게 되는데 이를 음악에서는 형식이라고 한다.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음악형식은 '절가'형식으로, 이는 '인민음악의 기본형식이다.'라고 김정일 음악예술론에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음악은 성악곡이든 기악곡이든 기본적으로 '절가형식'이라는 틀에 의하여 구조화된다.¹²⁾

10) 북한에서는 남한의 장조(Major)에 해당하는 조성을 '대조(大調)'라고 하고 단조(minor)에 해당하는 것을 '소조(小調)'라고 한다.

11) 교육도서 출판사, 고등중학교 음악 2, (1996).

12) '인민음악에서 노래의 기본형식은 절가이다'라고 김정일은 그의 음악예술론 75쪽에 명시하고있다.

북한 음악의 기본 형식인 절가형식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절가란 형상적으로 완결된 선율이 반복되면서 가사 내용의 변화 발전에 따라 형상이 전개되어 나가는 음악형식이다.'¹³⁾ 남한에는 이와 상응하는 것으로 유절가곡이라는 것이 있다. 유절 형식이란, 시의 내용에 관계없이 1절 2절의 선율이 같은 가곡의 형식을 지칭한다. 예를 들면 안익태의 '애국가'는 유절 형식이다. 북한에서 기본으로 삼고 있는 절가형식은 정의상으로 보아서는 남한의 통절형식처럼 가사에 따라 선율이 변형되는 즉, 가사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는 형식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남한의 유절가곡의 형식과 흡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절가는 인민에 의하여 발생·발전되어온 인민적인 음악형식이다.'라고 지적하며, '이는 민요를 통해서 전해졌고,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인민음악가들에 의하여 보존되고 발전되었으며 구조적으로 완성되었다.'고 절가형식의 뿌리를 밝히고 있다. 절가형식의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 1) 절가 형식은 선율을 반복하는 특성을 갖는다.
- 2) 반복되는 선율은 '특색있고 개성적'이어야 한다.
- 3) 절가에서 선율의 반복성은 가사도 선율에 맞게 창작될 것을 요구한다.
- 4) 절가형식은 가사의 구조를 맹목적으로 따라가지 않는다.
- 5) 절가형식은 구조가 간결하다.
- 6) 절가형식은 간결한 대구적 특성을 갖는다.
- 7) 선율이 평이하고 부르기 쉬우며 구조가 소박하고 가려듣기 쉽다.

북한이 위와 같은 절가형식을 음악형식의 기본으로 삼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첫째로, 다른 형식에 비하여 절가형식이 인민들의 수준에 알맞으며 기억하기 쉽다는 점이다. 음악예술론에는 이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성악형식만 보더라도 대화창형식, 아리아형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형식이 있다. 대화창형식은 음악이 대사를 따라가면서 말의 억양을 모방하므로 자기의 독자적인 구조가 없고 감정정서의 표현이 자연스럽지 못하며 아리아형식은 기억하기 힘들고 따라 부르기 어려운 번잡하고 긴 형식을 취하므로 인민들이 좋아하지 않는다.'¹⁴⁾

둘째, 절가의 근원 또는 뿌리가 인민적이고 '나'보다는 '우리'라는 집단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절가는 인민에 의하여 발생·발전되어온 인민적인 음악형식이다. 절가형식은 그 발생자체가 인민대중의 노동생활과 밀접히 결부되어 있을 뿐 아니라 집단적인 가창형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¹⁵⁾

셋째, 역사적으로 대중에게 가장 애호되어온 형식이 절가형식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역사적

13) 상계서, 75쪽.

14) 상계서, 75쪽.

15) 상계서, 76쪽.

으로 인민들이 즐기고 사랑하는 가요형식은 거의 다 절가형식을 취하였으며 오늘에 와서도 대중가요는 거의 다 절가형식으로 되고있다.¹⁶⁾

넷째, 지배계급이 천시하던 절가형식은 착취받던 인민이 주체가 된 국가체제에서 그 가치를 다시 인정받아야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날 억제당하던 인민적인 절가형식은 오늘 자기발전의 새 시대를 맞이하였다. 우리는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게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절가형식을 적극 내세우고 장려하여야 한다.'¹⁷⁾

위와 같은 이유와 정당성을 가지고 북한은 절가형식을 가요 창작에서부터 비롯하여 기악곡 및 다양한 장르에 이르기까지 북한 음악의 기본적인 형식으로 삼고 있다.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북한은 앞으로도 절가형식에 근거한 음악을 계속 창작할 것이고 그것을 발전시켜나갈 것이다. 즉 체제 자체가 변하지 않는 한 절가형식은 북한의 음악을 담는 기본적인 틀이 될 것이다.

2. 북한 음악의 종류

21세기 최대의 음악감상 자료실이라고 할 수 있는 MP3 인터넷 사이트에 보면 음악의 장르는 세분화된 장르까지 합쳐 약 300여 장르가 제시되어있다. 북한 음악의 종류는 이에 비하여 제한적이지만, 나름의 체계를 가지고 제시되어있다. 북한 음악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 음악의 종류는 크게 성악, 기악, 혼합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세분화된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성악곡으로는 가요를 으뜸으로 친다. 가요란 대중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음악의 종류를 지칭한다. 이러한 가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혁명가요**이다. **혁명가요**는 혁명적인 사명과 대중을 동원하고 조직화하여 혁명과 건설에 나서도록 하는 가요를 말한다.¹⁸⁾

이북 가요들의 종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각 장르에 대한 정의는 가능하면 원전의 것을 그대로 제시하기로 한다.

- 1) **송가**: 송가관 수령과 당, 국가를 높이 찬양한 노래를 말한다. 송가는 선율이 폭이 넓고 웅장하며 장엄한 것이 특징이다. 송가에는 김일성 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원수님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위대성, 높은 덕성을 노래한 작품들 그리고 조선로동당과 사회주의조국에 대한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노래한 작품들이 속한다. 혁명송가의 예로는 '김정일 장군의 노래',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애국가', '로동당은 우리의 향도자' 등이 있다.

16) 상계서, 76쪽.

17) 상계서, 76쪽.

18) 상계서, 115쪽.

- 2) 혁명가요: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 밑에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창작된 노래를 말한다. 불후의 고전적 명작으로 ‘반일전가’, ‘아동단가’, ‘소년애국가’ 등을 들 수 있다.
- 3) 행진가요: 씩씩하고 박력 있으며 전진형 성격으로 충만한 노래를 말한다. 북한에서 자주 불리어 지는 행진가요로는 ‘승리의 5월’, ‘충성의 한길로 가고 가리라’, ‘자력갱생 행진곡’ 등이 있다.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혁명가》 《유격대행진곡》 등이 좋은 행진가요로 북한에서 불리어지고 있다고 한다.

남한과 마찬가지로 소수이지만 북한에도 서정가요가 있다. 서정가요는 ‘사람들에게 생활에 대한 희망과 낙관을 안겨주고 인민을 새 사회 건설을 위한 투쟁으로 힘있게 고무하는’ 음악으로 정의된다. 김정일의 음악예술론은 《문경고개》, 《내 고향의 정든 집》 등이 좋은 서정가요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북한의 고등중학교 교과서에는 다음과 같은 서정가요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있다.

- 4) 서정가요: 아름답고 충만한 정서, 부드러운 선율과 따뜻하고 다정한 울림을 주는 노래를 말한다. 대표적인 서정가요로는 ‘세상에 부림 없어라’, ‘내 나라 제일로 좋아’ 등을 들 수 있다.¹⁹⁾ 즉, 북한의 서정가요는 선율선의 부드러움 등은 같으나, 남한의 것과는 다소 차이점이 있는데, 북한의 서정가요 가사 내용이 애국, 애향 등의 내용을 주제를 다루고 있는 점에 비하여 남한의 서정가요는 ‘사랑’, ‘우정’, ‘자연의 아름다움’ 등 다양한 주제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즉, 북한의 서정가요는 다른 노래와 마찬가지로, 북한 음악의 철학적 배경에 충실한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에서도 민요라는 장르의 음악이 불리어지고 있으며 교과서에도 약간 제시되어있다. 북한은 민요를 크게 전통적인 민요와 작곡된 민요로 다음과 같은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다.

- 5) 민요: 원래 오랜 역사적 과정에 근로인민들 속에서 창조되고 불리어온 노래이다. 그러나 작곡가들이 만든 가요들 중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인민들 속에서 널리 불리우는 노래도 민요로 된다. ‘노들강변’, ‘그네뛰는 처녀’ 등 많은 노래들이 작곡가가 있지만 민요로 된다. 또한 민요는 그 용도에 따라 종류가 나뉘게 되는데, 그 종류는 노동민요, 서정민요, 료무가형식 민요, 풍자민요, 서사민요 등이 있다.²⁰⁾

로동가요와 무곡가요 역시 북한의 성악음악에 속한다. 이러한 음악은 ‘로동의 기쁨과 생활의 보람’을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악곡으로는 독주곡, 실내악곡, 기악중주곡, 교향악, 협주곡, 관현악 조곡과 경음악 등이 있다. 독주곡에는 단소, 저대, 장새납, 옥류금 등 민족악기를 위한 독주곡과 양악기를 위한 독주곡이 있고, 실내악곡으로는 만수대예술단의 여성중주조가 연주하는 양식을 따르는 중주곡이 있다.

19) 교육도서출판사, 고등중학교 음악 2, (1996).

20) 교육도서출판사, 고등중학교 음악 1, (1996), 4쪽.

교향악, 관현악곡 그리고 협주곡 등의 분야에는 교향곡 《피바다》, 《청산벌에 풍년이 왔네》와 같은 관현악곡, 피아노 협주곡으로 《조선은 하나다》와 같이 모두 성악 작품에 기초한 음악이고 지시주의적 표제음악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혼합으로 이루어진 곡은 대규모의 악곡이 주류를 이루는데, 북한이 가장 자랑하는 장르가 바로 가극의 장르로, 가극 《피바다》는 '우리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새형의 가극이다' 라고 밖에 내세울 만큼 북한이 자랑하는 악곡이다.

이상의 북한음악의 장르를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음악의 종류>

연주매체	악곡의 종류
성 악	가요, 혁명가요, 송가, 행진가요, 서정가요, 노동가요, 무곡가요, 민요, 당정책 해설 가요
기 악	독주곡, 실내악곡, 중주곡, 교향악, 협주곡, 관현악곡, 경음악
혼 합	가극

위와 같은 음악 이외에도 북한에는 소위 '연변가요'라 불리는 남한의 대중가요가 그 가사만 바뀌어져 북한 청소년사이에서 암암리에 불리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 졌다. 또한 북한은 이러한 음악을 보다 주체적으로 연주하기 위하여 다양한 악기 개량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이는 전통 악기를 개량한 것으로 개량악기들의 경우 전통악기에 비하여 음향이 크고, 음역이 넓으며, 서양의 음악을 그대로 연주할 수 있도록 평균율에 근거한 악기로 개량되었다. 개량악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태평소를 개량한 장새납, 가야금을 개량한 옥류금 등을 들 수 있다.

IV. 북한의 음악교육과 악곡의 종류

1. 북한 음악교육

북한의 음악교육은 전문가 교육과 일반교육으로 나뉜다. 전문가 교육은 유치원에서부터 어린 이들을 선발하여 특수교육을 한다. 일반 음악교육은 인민학교(1~4학년)와 고등중학교(1~6)에서 실시한다. 음악교과의 시간 수는 인민학교의 경우 1~4학년까지 주당 2시간을 배당하고 있으며, 이는 총 시수 3,603 대비 304시간으로 8.4%에 해당된다. 반면 고등중학교에서는 1~4학년 까지 주당 1시간을 가르치고 있으며, 총 시수 6,343 대비 140시간으로 2.2%에 해당된다. 북한의

학교 음악교육 내용은 혁명가요를 중심으로 한 가창교육이 주류를 이룬다.²¹⁾

북한은 전통악기를 개량하여 서양악기와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고, 1인 1악기 다루기 교육을 주도하고 있으나, 악기의 비용이 일반 노동자들은 거의 악기를 다룰 수가 없는 실정이다.

학교의 소조활동에도 음악악대가 존재하여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음악부는 당의 고위층자녀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이들은 지역의 당 행사에 필요한 음악을 주로 연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음악악대는 일반학생들의 미움과 부러움을 동시에 사게 되는데 그 주된 이유는 이들은 '노력봉사활동' 등 학생들을 동원하는 노동에서 제외되며 늘 음악을 연습할 수 있기 때문이다.²²⁾

북한학교의 음악시간에는 발성법에 이어 제재악곡을 노래부르는 것이 주된 활동이다. 교사가 강조하는 발성은 복식호흡에 의한 힘있는 소리임에 비하여 북한에서 선호하는 창법은 남한의 극적이고 유연성있는 소리에 비하여 비음을 많이 사용하는 맑은 소리이다.

북한의 음악교과서에는 노래하기, 악기 연주하기, 감상하기 등이 있으며, 독특하게 시창에 대한 교육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한의 음악 교과서가 교수·학습의 한 자료적인 역할을 하며, 교사의 선택 재량권이 있음에 비하여 북한의 경우, 교사가 교과서 전체를 모두 학습하여야 하는 '교과서 전체 학습'의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학교 음악교육에서도 김정일의 주체 사상은 매우 중요하다. 그 예로, 교과서의 구성구석에 김정일 음악예술론에 거론된 테제들이 제시되어 있다. <음악에서 중요한 것은 '선물'로서 인민이 이해할 수 없는 음악은 참음악이 아니다> 또는, <음악이 없는 삶은 꽃없는 화단과 같다> 와 같은 내용이 음악교과서에 제시되어 있다.

2. 북한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의 종류

북한의 인민학교²³⁾와 고등중학교²⁴⁾의 교과서에는 제한적인 악곡들이 제시되어 있다. 남한에서는 성악곡이라고 부르는 것을 이북에서는 '가요'²⁵⁾라고 부른다. 제시된 악곡들은 송가, 혁명가요, 행진가요, 서정가요, 민요 등이 있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 나타난 가창 제재곡의 성격을 학년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 도표와 같다.

21) 북한의 음악교육내용은 최근에 남한으로 귀화한 탈북자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고, 북한의 인민학교와 고등중학교 교과서의 분석을 통하여서도 파악할 수 있었다.

22) 위 내용은 7월 5일에 있는 탈북 청년들과의 면담을 통하여 확인된 사실에 근거하여 제시한 것임.

23) 남한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며 학년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로 구성되어있다.

24) 남한의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해당한다. 학년은 1학년에서 6학년까지 나타나있고, 음악은 1학년에서 4학년까지 지도하도록 과정안 (우리나라의 교육과정 편제표에 해당됨)에는 제시되어있으나, 1966년에 발간된 교과서에는 고등중학교 5학년 음악교과서가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5학년에서도 음악을 교육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25) 북한에서는 가요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요란 가사와 선율이 하나로 결합된 가장 간결한 성악작품형식을 말하며 일명 노래라고도 한다'. 가요의 종류로는 송가, 혁명가요, 행진가요, 서정가요, 당정책해설가요, 민요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인민학교 1학년 교과서 제재곡의 성격구분>

과	과명	가사의 내용	조성	박자	악곡의 구분
1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일성 찬양	다장조	4/4	송가
2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노래	김정일 찬양	다장조	4/4	송가
3	원수님 노래하며 학교에 가요	김일성 찬양	5음계	4/4	행진가요
5	로동당을 세워주신 원수님께 인사드려요	김일성 찬양	5음계	4/4	행진가요
7	백두산 하얀눈	김일성 찬양	내림마	2/4,4/4	송가
14	나는나는 크거든	장래희망	바장조	3/8	서정가요
16	원수님 초상화	김일성 찬양	바장조	4/4	송가
21	우리마을 꽃마을 꾸려가지요	향토애	바장조	3/4	서정가요
23	4월의 명절은 온 나라 명절	김일성 찬양	다장조	6/8	송가
25	오각별이 빛나요	인민군 찬양	5음계	3/4	혁명가요
29	꼬마탱크 나간다	외세배척	5음계	3/4	혁명가요
31	장자산의 학습터	김일성 찬양	바장조	3/4	송가
33	정원의 새들을 날리셨지요	김일성 찬양	다장조	6/8	송가
36	사회주의 우리농촌 살기 좋아요	체제 찬양	5음계	3/4	서정가요

<인민학교 2학년 교과서 제재곡의 성격구분>

과	과명	가사의 내용	조성	박자	악곡의 구분
1	수령님의 만수무강 축원합니다	김일성 찬양	바장조	3/4,4/4	송가
2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친애하는 지도자 동지의 만수무강을 축원합니다	김정일 찬양	사장조	3/4,4/4	송가
4	별처럼 빛나는 김정숙 어머님	김정숙 찬양	5음계	6/8	송가
9	지주님은 나쁜놈 원수놈이죠	부르조아 타도	5음계	2/4	혁명가요
14	소년단 행진곡	소년단 긍지 함양	바장조	4/4	행진가요
16	꽃봉오리 설인사 삼가 드려요	설맞이 기쁨	바장조	12/8	서정가요
17	2월의 새 봄	봄을 노래함	5음계	4/4	서정가요
21	정말 고맙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찬양	다장조	4/4	송가
23	만경대는 꽃동산	만경대, 김일성 찬양	5음계	6/8	서정가요
25	나의 손은 보배손	노동, 생산찬양	내림나	2/4,3/4	혁명가요
27	정말 고운 옷	김일성 고마움	바장조	2/4,4/4	송가
29	우리 학습반 참말 좋아요	협동의 중요성	바장조	4/4	서정가요
31	바다가 나는 좋아	자연을 노래	다장조	4/4	서정가요
34	장자산의 별	자연을 노래	내림 나	6/8	서정가요

<인민학교 3학년 교과서 제재곡의 성격구분>

과	과 명	가사의 내용	조성	박자	악곡의 구분
1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인민공화국 찬양	라장조	2/4,4/4	송가
3	빛나라 우리 평양	김일성 사상 찬양	다장조	4/4	송가
5	지도자 선생님께 영광드려요	김정일 찬양	내림나	4/4	행진가요
7	우리모두 감사드려요	김일성, 김정일 찬양	라장조	3/4	송가
11	그날의 높이신 뜻 새겨가지요	혁명의 다짐	바장조	6/8	혁명가요
13	우리는 아동단원	아동단 찬양	5음계	12/8	혁명가요
15	어머님의 그 충성 따라 배워	김정숙 찬양	다장조	3/4	송가
16	모란봉의 피콜레	김정일의 자연사랑 예찬	내림마	6/8	송가
18	거리와 마을의 꼬마주인	공산주의 꾸며나가기	내림마	4/4	서정가요
22	진달래	김정일의 효도	다장조	4/4	혁명가요
29	일본 군국주의를 때려부시자	일본배척	바장조	4/4	행진가요
31	충성의 노래 높이 야영합니다	김일성, 야영	다장조	4/4	행진가요

<인민학교 4학년 교과서 제재곡의 성격구분>

과	과 명	가사의 내용	조성	박자	악곡의 구분
4	축복의 노래	김일성 찬양	바장조	6/8	송가
6	백두산 고향집	조국 찬양	내림나	4/4	송가
9	3대 기술혁명 참말 좋아요	노동의 즐거움 고무	바장조	2/4,4/4	혁명가요
15	김정숙 어머님 사령부를 지킵니다	김정숙 찬양	내림마	4/4	혁명가요
16	백두산의 해돋이를 노래불러요	주체사상찬양	내림마	9/8	송가
19	해마다 커만 가는 원수님 사랑	김일성 찬양	내림마	6/8	송가
25	장자산의 이야기 전해주렴아	김정일 찬양	다장조	6/8	송가
27	소년 근위대원의 노래	반미사상	라단조	4/4	행진가요
32	우리는 배우며 자라요	김일성 찬양	다장조	4/4	송가
34	사랑하는 조국에	나라사랑	내림나	3/4,6/8	혁명가요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의 경우 가창곡은 주로 송가, 혁명가요, 서정가요 등이 수록되어있고, 민요나 윤후곡 등은 포함되어있지 않다. 반면에 감상 악곡으로는 경음악, 서정가요, 혁명가요 등이 기악곡 또는 기악과 성악으로 편곡되어 제시되어있다.

남한의 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북한의 고등중학교의 교과서에 제시된 악곡의 종류는 1996년 판 교과서의 경우 인민학교 교과서의 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다. 인민학교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반미, 반 남한체제에 관한 내용이 약간 줄어들었고, 송가와 혁명가요가 주를 이루며 서정가요가 다소 포함되어있다. 특이한 점은 인민학교에는 극히 제한적인 민요나 전통음악에 해당하는 단원이 고등중학교 교과서에는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등중학교 1학년: 제 9과에 가야금 연주법, 10과에 조선장단 설명, 12과 가야금 독주곡 '초소의 봄' 감상이 있고; 2학년: 제 7과 소해금 독주 '봄 맞이' 민요설명, 11과에 조선장단과 장고에 대한 설명(27쪽)이 있고; 3학년: 9과 단소의 연주법, 12과 단소 2중주 '만경대는 혁명의 요람' 감상, 18과에 우리나라 민요조식 설명; 4학년: 굿거리장단, 룡음 (농현), 휘모리장단에 대한 설명 등이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다.

고등중학교 음악교과서에 특이하게 포함된 것은 해방전 가요라고 하는 '반월가'²⁶⁾가 수록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남한에서는 '푸른하늘 은하수'로 널리 불리어 지고 있는 동요이며, 가사 자체도 남한에서 불리우는 것과 전혀 다름이 없다. 또한 제목은 다르지만 해방이전으로부터 불려오는 동요들이 수록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고등중학교 1학년에 실려있는 '고향의 봄'²⁷⁾ 3학년교과서에 있는 '그리운 강남'²⁸⁾이 그것이다.

고등중학교의 교과서에는 송가, 혁명가요, 서정가요, 민요, 등이 비례는 각기 다르지만 모두 포함되어 있으며, 북쪽의 영화음악, 남한에서 불리어지는 동요들이 포함되어있는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음악에서는 이러한 노래들을 어떻게 부르는가하는 연주방법도 중요한데, 이북 교과서에서는 '방창'이라는 형식을 '김정일이 고안한 주체적인 연주 방식'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방창은 이름은 다르지만, 이미 고전오페라에서부터 사용되던 연주 방식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방창의 정의와 방식은 다음과 같다. 방창: 등장인물이 아닌 가수들이 무대 밖에서 하는 성악연주형식을 일컫으며, 그 종류로 남성방창, 여성방창, 혼성방창이 있고 인원수에 따라 독창, 2~3중창, 대중창, 소방창, 대방창, 두가사방창²⁹⁾ 등이 있다.

26) 교육도서출판사, 고등중학교 음악 2(1996), 19쪽.

27) 고등중학교 1학년 교과서 28쪽에 실려 있는 고향의 봄은 1절만 소개 되어있으며, 교과서의 하단부에는 작곡가 홍난파에 대하여도 소개하고 있고 아울러 고향의 봄에 대한 설명을 "동요 '고향의 봄'은 이역땅에서 봄을 무한히 그리워하는 인민들의 절절한 감정을 동심적으로 노래한 작품으로 민족적 정서가 짙은 명곡"이라고 소개하고 있다.

28) 그리운 강남은 3/4박자 사장조로 되어있으며 노랫말은 다음과 같다. 정이월 다가고 삼월이라네, 강남갔던 제비가 돌아오며 는, 이땅에도 또다시 봄이 온-다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강남을 어-서-가 자.

29) 두가사방창이란 노래하는 2개 이상의 그룹이 2개 이상의 가사를 서로 주고받거나, 동시에 노래하는 것을 말한다.

I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민족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궁극적 목적을 가지고 북한 음악의 실상을 조명한 연구이다. 민족의 평화적 통일은 대다수 국민의 바램이지만, 청소년층에서의 통일에 대한 생각과 바램은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통일 문제는 범교과적인 '교육적 명제'라고 생각된다. 따라서 음악과에서도 통일에 대한 구체적인 준비와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분단 55년이 가져다준 민족의 이질성은 음악적인 면에도 뚜렷하게 존재한다. 그런 맥락에서 북한 음악의 실상을 일차적 자료를 통하여 분석해보고, 있는 그대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과 통일의 기반 다지기에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다.

이 연구에 사용된 일차적 자료는 '김일성의 음악예술론', '북한음악년감', 인민학교 및 고등중학교 음악 교과서를 사용하였고, 연구의 관점으로는 북한음악의 철학적 배경과, 북한음악의 종류, 교과서에 나타난 음악의 종류를 분석하여 보았다. 또한 북한음악교육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음악교육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북한의 음악은 '주체음악'이란 모토 위에 성악음악과 구체적인 음악 위주로 발달된 점을 알 수 있었다. 위머의 철학처럼 지시주의적 기반 위에 형성된 음악관은 음악을 인민과 당을 위한 공복의 입장으로 규명하며, 인민이 즐기고 이해할 수 있는 것만이 좋은 음악이고 명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은 남한의 음악관과는 상충되는 점이 많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남한에서 추구하는 '음악을 위한 음악', '예술적 음악', '음악의 예술론', '순수 음악의 아름다움' 등과 같은 문제를 현시점에서 북한은 수용할 수 없는 입장이라는 점이다.

북한에서 사용되는 음악은 절가형식을 기본 틀로 형성된 성악곡들이 혁명가요, 송가, 민요, 행진가요, 등으로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기악곡들이 독주, 중주, 협주, 합주곡의 형태로 존재한다. 가곡은 북한이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된 분야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피바다'를 들 수 있다. 교과서 제재곡으로 제시된 악곡 역시 북한음악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1996년에 출판된 고등중학교의 교과서에 '고향의 봄', '그리운 강남'과 같이 제한적이거나 남한에서 불리어지는 동요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민족의 음악적 동질성 회복의 발판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2. 북한음악의 이해를 위한 제언

남북이 분단 체제 속에서 나름의 발전을 꾀해온 지도 어언 55년이 지났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북한의 음악관과 음악은 남한의 것과 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음악에 대한 기본 철학이 다르고, 음악의 역할에 대한 관점이 다르다. 따라서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고 나아가 이질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첫째, 음악은 사회적 산물이다. 따라서 음악은 해당하는 음악이 태어날 당시의 사회상과 정서를 그대로 반영하게 된다. 또한 음악은 거꾸로 동시대와 미래를 선도하는 힘을 갖게 된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음악은 북한의 체제와 목적에 알맞게 생성되었고 그러한 기능을 북한에서 수행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여야 한다.

둘째, 남한과 북한은 각기 다른 음악철학 속에서 각기 체제에 익숙한 음악을 유지 발전시켜왔다.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음악철학은 물론, 정치적, 사회적 제도들을 이해하고 그러한 배경적 지식을 가지고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셋째, 북한과 남한은 한 민족이지만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 관점에서 55년간이나 각기 다른 양상을 띠며 존속해 오고 있기에, 남한의 입장에서 북한의 음악을 비평하는 것이나 북한의 입장에서 남한의 음악을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넷째, 북한의 음악적 주체성에 대한 가치판단은 유보되어야 하고, 개량 악기 등 다양하게 개발된 음악자료들은 남한 체제에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다섯째, 북한의 음악을 접하는 방법으로는 먼저 이질감이 적은 민요, 서정가요 등을 접하고 점차 영역을 확산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섯째, 차세대에 대한 음악적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북한의 성악곡 가운데 선율과 음악미적 감각이 뛰어난 곡은 '노래 가사 바꾸어 부르기'의 방법으로 수용하고 음악예술성이 높은 기악곡은 학교음악교육의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극적인 활동을 통하여 북한 음악을 차세대에게 체계적으로 교육하여야 통일 후의 음악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일곱째, 북한 음악에서 사용되고 있는 민요의 경우 순수민요보다는 노동요와 같은 서민적이고 목적이 있는 민요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 만큼, 이러한 민요를 학교 음악교육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차세대가 남과 북은 음악적으로 한 민족임을 깨닫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북의 음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여덟째, 북한의 음악을 이해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공연음악 교류도 중요하지만, 통일을 위한 음악계의 과제는 음악교육자, 음악학자들의 교류와 학술적 교류를 통하여 상호 음악의 이질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단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천해나가야 한다.

참 고 문 헌

- 강석기. 남북한 교육제도에 관한 비교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곽병선 외. 통일대비 교육과정 개발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8.
- 계원희. 북한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5.
- 김경웅 외. 통일문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연구개발과, 2000.
- _____. 북한 정치 사회화론. 박영사, 1995.
- _____. 신북한 개론. 을유문화사, 1999.
- 김영환 외. 남북한 통합, 그 접근방법과 영역(下). 한림과학원, 1996.
- 김정일.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음악예술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김주성. 통일을 대비한 교과교육. 한국교원대학교. <http://cc.knue.ac.kr/~rscsme/data/report97/n97510.htm>, 1997.
- 김진희. 북한 음악교육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노동은 외. 민족음악론. 한길문학예술총서[3]. 한길사, 1991.
- 민족음악연구회. 민족음악의 이해. 도서출판 한울, 1992.
- 박세홍. 통일을 대비한 남북한 초등 교육과정 통합 방안 연구. 숭실대학교 통일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박순녀 외. 조선음악년감. 문학예술종합출판사, 1993.
- 서종운 외. 조선음악전집 9. 문예출판사, 1991.
- 송병순 외.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해방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논문집. 한겨레신문사, 1995.
- 성경희, 장기범. 음악교과학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심부자. 북한음악교육의 분석적 고찰.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7.
- 유균상.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1997.
- 윤양희 외. 남북한 미술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 연구. 계명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연구위원회, 1999.
- 이도식. 통일 시대 음악 교육의 방향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http://cc.knue.ac.kr/~rscsme/data/report97/n97507>, 1997.

- 이돈희 외. 제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개발 체제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교육과정개정연구위원회, 1997.
- 이정순. 남·북한 초등(인민)학교 음악 교과서 비교·분석.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0.
- 임영아. 북한의 음악교육실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8.
- 통일부. 북한 이해. 통일부 통일교육원, 2000.
- 조난심 외. 국가수준 교육과정 개발 및 적용 체제 개선을 위한 기초 연구. 한국교육과정평가원, 1999.
- 조주연 외. 남북한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모형 개발 연구. 서울교육대학교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5.
- 주초자. 남북한 초등학교 교육과정의 비교 연구.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9.
- 통일부. 2000년 통일교육기본지침서. 통일부, 1999.
- _____. 2000 통일백서. 통일부 통일정책실, 2000.
- 한국교육개발원. 남북한 중등학교 도덕·사회과 교육과정 및 교과서 비교 분석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수탁과제 CR 97-66, 1997.
- 한만길. 통일시대 북한교육론. 교육과학사, 1997.
- _____. 학교 통일교육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CR 99-41, 1999.
- 한상우. 북한 음악의 실상과 허상. 신원문화사, 1989.
- 함수근. 제 7차 교육과정에 반영된 통일 교육 관련 내용 분석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통일대비 교육과정 연구위원회, 1999.
- Reimer, Bennett. A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Englewood Cliff, NJ: Prentice-Hall, 1970.

북한교과서

- 교육도서출판사. 고등중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1996.
- _____. 고등중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1996.
- _____. 고등중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1996.
- _____. 고등중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1992.
- _____. 고등중학교 5. 교육도서출판사, 1996.
- _____. 인민학교 1. 교육도서출판사, 1990.
- _____. 인민학교 2. 교육도서출판사, 1990.
- _____. 인민학교 3. 교육도서출판사, 1990.
- _____. 인민학교 4. 교육도서출판사, 1990.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on the Music of the DPRK: emphasis on Philosophy, Form and Genre

Ki-Beom Ja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usic of the North Korea. It has been more than 55 years since the Korean peninsula has divided into two countries by the force of foreign countries. Currently, an ardent wish for reunification is growing in every corner of the South Korea. Thus it is necessary for music educators to prepare basis for the musical reunification. Since the South and the North Korea have set apart for more than 55 years, there are many dissimilarities and heterogeneities such as language, tradition, way of living, political identity, economic status, culture and musical culture.

It is the responsibilities of music educators to prepare ways of building musically reunified country. As a first step of the stated necessity, this thesis has tried to answer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 1) what is underlying philosophy of North Korean music?
- 2) what kinds of music exists in the DPRK?
- 3) what is the predominant formal structure of DPRK's music?
- 4) what kinds of music are taught in the North Korean school music class room?
- 5) what consists the content of school music text book of the DPRK?

In order to answer the stated research questions, 'Theories on Music as an Art' written by Jung-il Kim, current political and military leader of the DPRK, and music text books of the North Korea were thoroughly investigated and analyzed. The following is the findings of this study.

First, though the North Korea follows the category of referentialism, the 'Juche'(self

identity) is the main philosophical basis of the North Korean music and music education practice.

Second, there are mainly three kinds of music exists in North Korea, and those are vocal music based on strophic form, pure instrumental music, and instrumental-vocal mixed music. Under these three categories, vocal music is very strong and well-developed.

Third, the kinds of songs in practice are revolutionary song, hymn of phrase for general Kim, Jung-Il, and past Kim, Il-Sung, lyrical songs, songs for work, march song, and folk songs.

Fourth, the predominant formal structure of the North Korea's musical practice is based on 'jul-ga' form which is similar to strophic form.

Fifth, In the North Korean music class, songs mentioned in the number 3 are mainly taught.

In North Korea, music is not simply for art's sake but for political propaganda's sake. Thus, function of music is very important in the north Korea. Music without referential function is useless in the DPRK. Other hand, in the south Korea, pure music for music sake philosophy is predominant. Considering these discrepancies, the researcher has drawn seven recommendations for understanding the music of North Korea at the end of the study.